

류현진, 월드시리즈 보스턴 2차전 4.2이닝 4실점 패전

아...공 하나·아웃카운트 하나에 운 ‘코리안 몬스터’



아쉬운 결과였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25일(한국시간)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패전 명예를 썼다. 5회 앤드루 베네티를 볼넷으로 출루시킨 후 고개를 숙인 채 마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류현진. 보스턴(미 매사추세츠주) | AP뉴시스

5회 2사 상황 2피안타·볼넷 후 교체
매드슨 부진으로 류현진 3자책 추가
LAD 2패 수렁...27일부터 홈 3연전



공 하나, 아웃카운트 하나가 천당과 지옥의 경계였다. 야구는 역시 어렵다.

한국인투수로는 처음 월드시리즈(WS·7전4선승제) 선발로 나선 류현진(31·LA 다저스)이 통한의 패전을 떠안았다. 25일(한국시간)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WS 2차전 원정경기에서 4.2이닝 6안타 1볼넷 5탈삼진 4실점(4자책점)에 그쳤다. 팀도 2-4로 저 2연패에 빠졌다.

‘2사 후’와 ‘하위타선’이 걸림돌이었다. 2-1로 앞선 5회말, 승리의 문턱에서 류현진과 다저스 모두 탈책 주저앉았다. 4회까지는 51개의 공만으로 4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5회에도 선두타자 이언 킨슬러를 1루수

망볼, 다음타자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를 유격수 뜯공으로 요려했다. 공 3개로 간단하게 아웃카운트 2개를 채웠다. 9번 포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만 처리하면 승리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3회 첫 대결에선 3구만에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타자라 별 문제가 없을 듯했다.

초구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2구째 커터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2구째와 비슷한 궤적의 3구째 커터는 파울. 4구째 직구(시속 147km)를 타자 몸쪽 깊숙이 찼었다. 스트라이크 콜이 나와도 무방했던 이 공을 주심은 외면했다. 류현진의 얼굴과 몸짓에서 아쉬움이 흘렀다. 5구째 바깥쪽으로 커터(시속 143km)를 던졌다. 바스케스가 가볍게 밀어 쳐 우전안타로 연결했다. 볼과 ‘한끗’ 차이로 이닝이 연장됐다.

류현진은 이어 1번 무키 베즈에게 중전안타, 2번 앤드루 베네티에게 볼넷을 내주며 2사 만루의 궁지에 몰렸다. 베네티의 타석을 전후로 릭 허니컷 투수코치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차례로 마운드를 방문했

고, 류현진은 끝내 공을 우완 라이언 매드슨에게 넘겨줬다. 달아오른 보스턴 타선의 열기를 매드슨은 막지 못했다. 3번 스티브 피어스에게 동점 밀어내기 볼넷, 4번 JD 마르티네스에게 결승 2타점 우전적시타를 허용했다.

2회 첫 실점 상황도 비슷했다. 1사 후 젠더 보가츠에게 중월 2루타를 맞았지만, 다음타자 라파엘 데버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7번 킨슬러에게 좌전적시타를 맞았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게임에 출전해 타율 0.182, 전란 WS 1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킨슬러를 상대로 손쉽게 아웃카운트를 보태지 못했다.

이제 다저스로선 달리 뽀족한 수가 없다. 27일 홈 3차전에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못하면 30년만의 WS 우승 희망은 실낱처럼 희미해진다. 류현진이 다시 한 번 기회(6차전 선발등판)를 얻을 수 있을지도 29일까지 이어질 다저스의 홈 3연전 결과에 달려있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코치 출신 단장 승격...MLB와 다른 길 걷는 KBO리그

정재우의 오버타임

성적 못지않게 중요해진 구단 경영
행정력 없는 야구인 시행착오 예상
엘리트가 장악한 MLB와는 정반대

KT 위즈와 LG 트윈스는 얼마 전 전격적으로 단장을 교체했다. 이를 두고 ‘가을잔치에 쓸려야 할 관심을 분산시켰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물론 달리 생각해볼 여지도 충분하다. KT와 LG 모두 그만큼 다급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KT 이승용 단장과 LG 차명석 단장이 야구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 바람을 불러온다면 분명 환영할 일이다. 선수 출신 단장을 앞세워 성공한 타구단들처럼 현장과 원활히 교감하고 소통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선수 출신 단장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흐름에서 나온 LG와 KT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만난 한 야구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했다. “행정력이 없는 야구인, 감독 경험이 없는 코치 출신이 단장을 맡다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을 것이다. 나름대로 프런트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야구인이라면 몰라도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구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영역이 확대되는 일임

에도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라고 했다.

KBO리그는 어느덧 지출 기준으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성적 못지않게 경영이 중요해졌다. 전적으로 모기업에 의존하던 시절과는 달라져야 한다. 더욱이 몇몇 구단은 모기업의 지원이 예전만 못하고, 소유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최소한 적자폭은 줄여야 한다. 물론 ‘성적만한 마케팅 요소는 없다’고 항변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국내 다른 프로스포츠 중목에선 KBO리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으로 당당히 대접받고 성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춰야 한다.

메이저리그(MLB)와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MLB는 이미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다. 경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빌리 빈의 ‘머니볼’이 성공한 뒤로는 수학·통계에 기반을 둔 세이버메트릭스가 각광받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단장을 비롯한 프런트 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이들은 선수 스카우트에 그치지 않고 경기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수년 새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다양한 수비 시프트와 타구의 발사각도, 강력한 볼펜야구 등이 그 결과물이다. 전통적 야구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MLB에 비춰보면 KBO리그는 오히려 뒤

걸음질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른바 ‘아알못’ 사장들이 자신을 위한 과외교사 또는 차기 사령탑 보험용으로 선수 출신 단장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포츠산업 또는 경영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대신 현장과 혼연일체가 돼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극심한 타고투저와 지속적인 특정팀의 독주로 상징되는 KBO리그의 경기력과 수준은 과거보다 떨어진다. 평가가 만만치 않다.

얼마 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그 때쯤이면 또 이런 얘기가 들려올 것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공부했다”는 고득점 노하우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각자의 자유다. 다만 ‘철저한 복습과 예습을 바탕으로 응용에도 충실했다’는 정도의 공통적 해석은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잔뜩 꼬아놓은 응용문제를 잘 풀려면 참고서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의 MLB는 교과서를 넘어 참고서까지 달달 외운 채 경영이든 경기력이든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KBO리그는 어디쯤일까. 교과서만큼은 철저히 파고들었던 과거에 비해 더 발전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스스로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놓고도 문제의식과 해법 찾기에선 단순함이 돋보이는 그들이라 걱정스럽다.

jace@donga.com

6년 만에 PO 무대 오르는 SK 김강민 “흥분된다”

부상 노수광 대신 리드오프 중책
“긴장감은 한 타석이면 사라질 것”

SK 와이번스의 왕조 시절을 함께한 베테랑 김강민(36)이 6년 만의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있다. 긴장보단 설렘이 더 크다. 중책을 맡았다. 손가락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노수광의 리드오프 자리를 채워야 한다. 김강민은 노수광이 지난 2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이후 8경기에서 5차례 리드오프를 맡았다. 해당 기간 동안 3할 타율과 1홈런 6득점으로 새로운 득점 공식을 만들었다. 트레이 힐만 감독도 “김강민이 리드오프로 잘 해주고 있다. 베테랑으로서 힘과 주루 모두 좋다”고 기대했다.

노수광의 공백은 작지 않다. 올 시즌 0.313의 타율에 93득점 도루 25개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김강민은 기록에 큰 부담을 느끼

지 않으려한다. 2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 만난 그는 “수광이가 워낙 잘 해줬다. 내가 100% 채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채우려고 한다”며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 최대한 베이스를 채우고, 어떤 방법으로도 앞선 주자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다”고 다짐했다.

가을 무대 경험이 많은 만큼 후배들을 이끄는 일도 그의 몫이다. 물론 김강민도 PO 무대에 서는 게 참 오랜만이다. 김강민은 “오랜만에 하는 PO라 기대된다. 아드레날린이 나올 것 같다. 긴장감은 한 타석, 플레이 하나로 사라진다”며 “우리는 수비나 타격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긴장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후배들도 처음이라 두렵고 긴장되는 거다. 단기전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면서 “임병욱(넥센 히어로즈)



김강민

도 처음인데 잘 하지 않나. 우리 팀에도 그런 선수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보냈다.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고 싶은 것이 김강민의 속내다. 그래야 8년만의 우승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 김강민은 “몇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할 것만 한다면 충분히 (넥센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 가을은 유난히 춥다. (우리의 열기로) 추위를 느끼지 않고,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인천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임창용 방출...파행으로 얼룩진 KIA의 동행야구

언제는 ‘레전드’라 하더니...팬 분노

KIA 타이거즈가 베테랑 투수 임창용(42)을 방출시켰다. 후폭풍이 거세다.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KIA는 “젊은 투수들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겉으로 듣기에는 꽤나 그럴 듯한 ‘리빙딩’ 핑계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임창용은 올 시즌 37경기에서 5승5패4세이브4홀드 평균자책점 5.42를 기록했다. 볼펜과 선발을 오가며 실 틈 없이 마운드에 올랐다.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결정전 엔트리에도 합류해 공을 던졌다. 시즌 마지막 순간까지 KIA가 기댄 투수는 바로 임창용이었다.

구단의 쓰임새가 떨어진 노장이 퇴출과 은퇴 중용 수순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올해의 임창용은 적어도 KIA에서 쓰

임새가 떨어진 선수는 아니었다. 이번 KIA의 일처리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분명 다르다. 한때는 ‘타이거즈 레전드’라고 실컷 이야기하던 선수를 쓰고 버린 꼴이다.

프런트의 손발이 안 맞는 이야기는 덤이다. KIA는 23일부터 임창용 한·미·일 1000경기 출장 기념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임창용의 방출 발표 날짜는 24일, 판매는 25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정상품’이기에 판매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판매를 한다는 게 구단의 방침이다. 전력에서는 제외 선수지만 마케팅에서는 아직까지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기 때문일까.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자랑스럽게 ‘대체불가’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다.

KIA가 수년 전부터 슬로전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바로 ‘동행’이다.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이다. 동행의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 행보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